



구강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

증식 속도 빨라 때 놓치면 치명적

구강암은 입술, 혀, 구강저, 상악하 치은, 구개부, 상악동, 인두부위 등에 발생하는 암으로서 구강 내에 존재하는 구강 상피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암이 90% 이상이다. 그 외 타액선 암, 흑색종, 육종 등이 10%를 차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 암 등록본부 보고에 의하면 전체 암 환자 등록자중 구강암 환자는 약 1% 조금 못 미치는 빈도로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이 8위에 해당된다. 남성이 전체 구강암의 68%로 여자에 비해 약 2배정도 많이 발생한다. 진행된 암의 경우 생존율이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암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인 흡연과 음주가 많은 나라임에도 국민들은 구강암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성용 교수가 한 달 이상 입안에 염증이 생겨 불편을 호소하는 60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조기진단 놓치면 말기 발견 색깔·질감변화 유일한 증상

‘금연·금주’가 예방 첫걸음

◇구강암의 증상과 증후=구강암의 경우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징후는 미미한 경우가 흔하다. 암이 유발된 부위에 보이는 불편감 혹은 통증이 유일한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구강 안을 살펴보면 딱딱한 질감의 변화 특히 궤양이나 전암병소(백반증, 홍반증)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 자신이 자각하는 증상이 비교적 적은 구강암의 경우 구강내를 주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전암병소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3주 이상 호전되지 않는 구강내의 궤양 ▲3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내의 부종 ▲구강점막의 적, 백색 반점 ▲3주 이상 지속되는 연하곤란 ▲한쪽 코의 지속적인 폐쇄현상 및 분비물 분비 ▲치주질환과 관계없는 설명할 수 없는 치아의 동요 ▲3주 이상 지속되는 경부 위 종물 ▲뇌신경 마비증세 등이다.

◇조기 구강암의 진단 방법=구강암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조직검사이다. 하지만 조직검사는 마취를 통해 일부의 조직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약간의 불편감을 야기하게 된다.

광학영상 진단방법은 최근 개발된 기기로

서, 광학기기를 통해 구강내를 살펴봄으로써 구강 내 전암병소의 유무 및 구강암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1~2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검사만으로 조기에 구강암을 진단할 수 있으며,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은 전혀 없게 된다. 다만 광학영상에서 구강 전암병소 및 조기 구강암을 발견하게 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을 해야 한다.

◇조기 구강암 검진의 중요성=구강암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자라는 암으로 1주일을 주기로 세포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구강암은 초기에 발견이 어려우며 환자의 자각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기에 발견된 구강암은 80% 이상의 치료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진행된 구강암의 경우는 5년 생존율이 50% 이하를 나타낸다.

조기에 진단되지 못한 구강암 환자의 대부분은 진행된(말기)상태로 병원을 찾게 되며, 이러한 경우 치료를 통한 생존율 또한 낮아지게 된다. 조기 진단은 암에 대한 치료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게 되며, 오랫동안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치과사의 구강암 및 구강전암병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구강암의 진단은 치과의사에 의해 진단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는 구강내를 항상 관찰하는 치과의사가 이상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과사의 구강암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없다면 병소를 간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조기에 진단이 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과사의 경우에도 구강암 및 전암병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현재까지 알려진 구강암의 최대 유발 요인은 흡연과 음주이다. 이 두 가지를 끊는 것은 구강암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게 된다.

정기적으로 구강암 검진을 통해 구강내 발생한 이상변(전암병소)을 빠르게 발견하는 것 또한 구강암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구강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조선대학교병원 구강종양센터 문성용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복부대동맥류 혈관내 치료 100% 성공률

지역 최초 치료 100례 기념 심포지엄

전남대 병원 영상의학과(과장 김재규·사진)와 이식혈관외과는 최근 지역 최초로 복부대동맥류의 혈관내 치료(endovascular aneurysm repair, EVAR) 100례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복부대동맥류(abdominal aortic aneurysm, AAA)는 동맥경화나 혈관 퇴행으로 인해 서서히 대동맥이 팽창하다가 한순간에 파열돼 대량 출혈 및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60세 이상의 경우 5% 정도에서 발

견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과거에는 수술로 치료했으나 1990년대 초에 인조혈관(stent-graft)이 도입돼 수술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면서 많은 환자가 혈관내 치료를 받고 있다.

복부대동맥류의 혈관내 시술은 양측 사타구니에 작은 절개를 만들어 혈관을 노출시켜 혈관 안으로 특수금속 스텐트에 인조혈관을 결합한 기구를 삽입, 동맥류를 혈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전남대병원 인터벤션실에서 시행한 복부대동맥류의 혈관내 치료는 지난 2006년 3월 23일 첫번째 환자를 시작으로 2011년 7월까지 총 126례의 시술을 시행했고,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전남대병원은 지역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인조 혈관(stent-graft)을 보유하고 있어 복부대동맥류 응급환자의 당일진료가 가능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급성심근경색’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과제 선정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2011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 신규 연구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정명호 교수의 ‘급성심근경색 환자 예후 및 관리 지표 발굴을 위한 전향적 추적 관찰연구’ 주제 연구과제는 서울대병원

등 15개 대학병원이 참여하게 되며, 5년간 약 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총괄책임자인 정명호 교수는 “이번 연구과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대한심장학회에서 주관해 진행됐던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

구(KAMIR :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등록연구로 전환, 한국인 심근경색증 관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는 2007년도 대한심장학회 창립 50주년 연구사업으로 정명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인 심근경색증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과제자로 선정, 진행하고 있는 연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근육량 많을수록 당뇨 위험 낮아져

근육량이 많을수록 2형(성인)당뇨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내분비과전문의 프레더 스티리칸 박사 연구팀은 전제 몸무게에 대한 근육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골격근 지수가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과 당뇨병 위험은 낮아진다고 밝힌 것으로 유에스에이 투데이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스티리칸 박사는 전국보건영양조사에 참가한 20세 이상 성인 1만364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골격근 지수가 10% 올라갈 때마다 인슐린 저항이 나타날 위험은 11%, 당뇨병 진단에 걸릴 가능성은 12%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인종·성별·체질량지수·복부비만 등을 감안했지만 이러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인슐린 저항이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세포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인슐린에 내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섭취한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광주 전역·전남 중부권 집중 진료”

동구 산수동 ‘SK병원’ 개원...24시간 응급 의료체계 도입

개원식 축하살로 불우이웃돕기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자리 잡은 광주 SK병원(대표이사 손영남)이 최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SK병원은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개원식 당일, 화환 대신에 받은 20kg들이 쌀 200여포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SK병원은 부지면적 6천500㎡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4개동 200병상을 운영중이다.

진료과목은 일반외과와 정형외과를 비롯해 내과·산부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가정외과 등이며 최신 설비를 갖춘 종합검진센터도 눈에 띈다.

SK병원은 척추·관절치료와 위·대장 내시경, 항문외과 전문병원으로서 최첨단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고정밀 단층촬영기(CT), 진단용·이동형 X선 촬영기 등을 갖춰 산수동 지역의 대표적 종합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응급 의료체계를 도입, 향후 권역별 응급센터로서의 발전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손영남 원장은 “SK병원은 첨단 진료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지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고객을 가족처럼, 당신만의 주치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병원은 광주 동구를 토대로 광주 전지역을 물론 장성·담양·화순 등 전남 중부지역 환자들을 집중 진료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wabyeong' (화병) treatment. Title: '화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Subtitle: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Text describes the concept of 'Hwabyeong' (imbalance of body and nature) and the benefi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cludes contact info: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Location map shows the clinic is near the intersection of Songjeong and Dugok roads.